

개인전 여는 세필회화의 대가 김홍주 "그림은 형태가 아닌 상상력"

28 December, 2015 | 이향휘 기자



개인전 여는 세필회화의 대가 김홍주

“그림은 형태가 아닌 상상력”

세필회화의 대가 김홍주(70)의 그림을 마주 하니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생각났다.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김홍주의 그림을 놓고 희비극을 논하긴 그렇지만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그림은 완전 판판으로 다가온다. 멀리서 보면 단색화 그룹의 한 작가 작품을 보는 듯하다. 한두 가지 색으로 그린 형상이 없는 추상회화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 형상이라는 것이 세필의 붓으로 하나씩 메워나간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작은 세필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작가는 시력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세필화 신작 13점을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K1관에 걸었다. 회색과 검은 색에서 탈피해 녹색과 파란색, 핑크빛이 감도는 캔버스가 연달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홍익대 재학 시절 단색화의 거두 박서보 아래에서 그림을 배운 그는 당시만 해도 정교한 묘사

국제갤러리 전시서 신작 13점 발표
“시력 나빠도 세필화 포기 못해
단색화 비슷하지만 기법은 달라”

가 뒷받침되는 극사실주의 회화를 추구했다. 그때 세필 화법을 능숙하게 익혀 지금에 이른 것이다. 1980년대는 원근과 명암이 배제된 풍경 시리즈에 천착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는 꽃이나 나뭇잎을 크게 확대해 그린 ‘꽃그림’에 몰두했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은 구체적인 형상이 이전보다 크게 약화돼 추상회화 느낌이 난다. 입체감 질감 명암 깊이가 결핍돼 풍경이나 꽃 같기도 하고 관람객의 상상에 따라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작가는 이를 ‘묘사를 포기한 세필화’라고 칭한다. “그간 묘사를 너무 많이 해서 지켜온 측면도 있어요. 현대미술에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재미가 없기도 하지요. 디지털 문화에서 형상이 너무 난무하니까. 그래도 옛날식 추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는 외형상 비슷해 보이는 단색회화의 차이에 대해 “실제로 제작 과정이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단색화가는 가능한 한 많이 그리지 않아요. 그림의 물성에 관심이 많지요. 저는 그리는 감각 자체를 가능하면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40년간 열정을 쏟았던 세필화 인생에서 그는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일까. “결론을 못 얻죠.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죽기 직전까지 인생을 어디 아나요. 예술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그리기’라는 행위와 과정을 중시하는 그다운 말이다. 엄청난 노력으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그의 그림은 삶과 어떤 지점에서 무척 많이 닮아 있다. 전시는 내년 1월 24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